



제5차 한·중·일(CJK) IT표준협력회의

TTA 표준화본부 표준총괄팀 과장 김 중 욱

TTA 표준화본부 전파방송팀 차장 박 정 식

TTA 표준화본부 정보통신팀 팀장 김 선

1. 회의 개요

- 일시 : 2005년 3월 28일(월)~29일(화) (2일간)
- 장소 : 일본 동경 신주쿠 소재 게이오플라자호텔(ARIB, TTC 공동 주최)
- 참석자 : 총 58명(일본 : 32명, 중국 : 9명, 한국 : 17명)
 - 일본 : Masayoshi Wakao(ARIB 사무총장), Nobuhiro Horisaki(TTC 사무총장) 등 총 32명
 - 중국 : Baoxin Zhou(CCSA 사무총장) 등 총 9명
 - 한국 : 김홍구(TTA 사무총장), 구경철, 김선, 김중욱, 박정식, 정용준, 최협(이상 TTA), 이재섭(HISPOT), 최준균(ICU), 김철수(인제대), 김형수(KT), 최태상(ETRI), 이현우(삼성전자), 최진성(LG전자), 김미혜(LG전자), 정명은(LG전자), 하정락(ETRI) 등 총 17명
- 회의목적
 - 한·중·일 3국간 표준공조로 국내 기술기반 표준의 국제표준화 추진
 - 4G 이동통신, NGN 등 우선순위 표준화분야에서 핵심 표준기술 공동 표준화
- 주요 회의의제
 - 제5차 한중일 표준협력회의 : 기관별 표준화 현황소개 및 토의
 - 제8차 B3G WG 표준협력분과회의 : 한중일 B3G 표준협력 2단계 작업계획 논의
 - 제3차 NGN WG 표준협력분과회의 : NGN WG 작업방법 및 NGN 관련 상호협력 이슈 토의

○ 회의일정 :

일자	오전(09:00-12:00)	오후(14:00-17:00)
3/28(월)	-	제3차 B3G 표준협력분과회의 제8차 NGN 표준협력분과회의
3/29(화)	제5차 한중일 표준기관회의 제3차 B3G 표준협력분과회의 제8차 NGN 표준협력분과회의	제5차 한중일 표준기관회의

2. 주요내용 및 성과

CJK 한·중·일 표준협력회의는 한국의 TTA, 중국의 CCSA, 일본의 TTC와 ARIB 4개 기관이 주축이 되어, IT표준화에 대한 상호이해와 동북아 협력을 돈독히 하기 위하여 2002년 6월 서울에서 제1차 회의로 출범하였다. 이번 제5차 한·중·일 협력회의에서는 제8차 B3G WG 및 제3차 NGN WG가 함께 개최되었다. 제5차 회의에서의 가장 큰 성과는 3개국의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한국의 BcN 기술과 관련하여 3국이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주요 회의내용

가. 제5차 한·중·일 표준협력회의

(1) 회의개요

- 참석자 : 총 35명(일본 : 16명, 중국 : 9명, 한국 : 10명)
- 일본 : ARIB - Masayoshi Wakao(ARIB 사무총장) 등 7명, TTC - Nobuhiro Horisaki

(TTC 사무총장) 등 9명

- 중국 : Baoxin Zhou(CCSA 사무총장) 등 9명
- 한국 : 김홍구(TTA 사무총장), 구경철, 김선, 최협, 김종욱, 박정식(이상 TTA), 이재섭(HISPOT), 하정락(ETRI), 이현우(삼성전자), 최진성(LG전자) 등 총 10명

○ 회의의제

- CJK 표준협력 기관별 표준화 활동 소개 및 토의, 산하 WG 활동보고 및 결과승인

(2) 회의내용

○ 중국(CCSA)

- 현재 CCSA는 총 9개의 기술위원회와 27개의 WG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4년 ITU, 3GPP, 3GPP2, CJK, TMF 등의 표준기관에 300개 이상의 기고서를 제출
- 3G Secrecy and Safety, B3G, Mobile Service and Application WG, Electromagnetic Environment Influence and Safeguard Technical Committee를 신설
- ETSI와 양해각서 체결
- 향후 B3G와 NGN, Home Network, RFID 등의 분야에 대한 연구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회원사들에게 CCSA가 “the home of members”라는 인식 재고



- 일본(ARIB, TTC)
 - 정부조직인 총무성 명칭이 MPHPT(Ministry of Public Management Home Affairs)에서 MIC(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으로 개명됨
 - 주파수 관련하여, 총무성은 현재 270MHz로 설정되어 있는 이동통신 주파수를 향후 5년내에 330~340MHz대로하고, 10년 후에는 1060~1380MHz대 주파수로 변경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ARIB는 주파수 재 분배에 따른 License 해지에 관한 보상을 수행
 - TTC는 위원회 조직개편을 통해 Media Coding WG과 Multimedia Platform WG이 Media Coding WG으로 병합되었고, 차세대 홈 네트워크 WG를 신설
 - TTC 및 ARIB의 최근 우려는 회원사 감소이며, 이에 대한 TTA의 회원사 유치홍보에 대한 자문이 있었음
- 한국(TTA)
 - 정통부 IT839 전략 정책에 따른 표준화로드맵 48개 핵심표준화 항목을 설명하고 TTA 핵심표준으로 DMB 기술표준 및 국내 서비스 일정을 소개
 - 특히 한국의 DMB 상용화에 관심을 가졌으며, 지난 ITU-T TSAG 회의에서 제안된 모바일 RFID 관련 자료를 요청

(3) 향후계획 및 대응방안

- 한·중·일 홈페이지 관련 각 기관의 CJK 관련 사이트에 있는 회의 및 B3G와 NGN 자료를 업데이트해 상호링크 시키는 방안을 TTA가 제안하여 3국이 합의
- 제6차 회의에서는 RFID/USN 관련 표준화 추진에 대한 3국간 협력이 필요

나. 제8차 B3G WG 회의내용

(1) 회의개요

- 참석자 : 총 24명(일본 : 13명, 중국 : 4명, 한국 : 7명)
 - 일본 : ARIB 및 TTC 총 13명
 - 중국 : CCSA 총 4명
 - 한국 : 박정식, 정용준(TTA), 하정락(ETRI), 최진성, 김미혜, 정명은(LG전자), 이현우(삼성전자) 등 총 7명
- 회의의제
 - 한·중·일 ITU-R WP8F 회의결과 검토 및 대응 활동계획 논의
 - 한·중·일 B3G 표준협력 2단계 작업계획 논의 등

(2) 주요 결과

- ITU-R WP8F 회의결과 검토 및 대응 활동계획 논의
 - 일본 및 한국에서 WP8F의 market SWG(시장 분석을 위한 5가지 파라미터 결정), SpecCalc SWG(주파수 소요량 산출 알고리즘 결정), Radio Aspect SWG(5개의 무선접속기술 그룹 결정)별 주요 결과를 보고함
 - 각국은 WP8F 작업일정에 따라 B3G '서비스 및 시장분석 보고서 작성' 및 '주파수 소요량 산출 알고리즘 테스트'를 위한 CG (Correspondance Group) 활동에 대응 활동하기로 함
- 한·중·일 B3G 2단계 표준협력 작업계획 합의
 - 한국 및 일본에서 표준협력 2단계에 대한 작업 방법에 대한 기고발표가 있었으며 각 국의 대표 단 소그룹 회의를 통하여 2단계 표준협력에서는

1단계에 이어 ITU-R WP8F 대응 B3G 서비스 및 시장분석을 위한 핵심 파라미터 산출, 후보 주파수 대역 연구, 주파수 소요량 산출 알고리즘 구현 등의 협력을 지속하기로 함

- 또한, B3G 무선접속 요소 기술(enabling component technology) 논의를 통해 향후 ITU-R, APT 등에 공동대응 및 기고하는 등 상호향식 국제표준화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결과물에 대해서는 차기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 기타 사항 협의

- 3GPP2의 요청으로 3GPP2 Evolution WS(2005. 6, 서울)에 한·중·일 B3G 표준협력 현황에 대한 기고문을 TTA에서 작성 및 의견수렴 후 기고하기로 함. 또한 8월 WWRF에도 같은 내용의 기고문을 발표하기로 함.

(3) 향후계획 및 대응방안

- 2단계 협력에서는 ITU-R WP8F 기고전 사전 CJK 회의를 통해 협력강화
- 활발한 B3G 요소 기술 논의를 통해 한·중·일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활성화 및 국제표준화기구 홍보를 통한 국제표준화 활동강화

다. 제3차 NGN WG 회의내용

(1) 회의개요

- 참석자 : 총 23명(일본 : 13명, 중국 : 3명, 한국 : 7명)
 - 일본 : Yoichi MAEDA(NTT) 등 13명
 - 중국 : Duo Liu(RITT) 등 3명
 - 한국 : 이재섭(HISPOT), 김형수(KT), 김철수(인제대), 최준균(ICU), 최태상(ETRI), 김선, 최

협(TTA) 등 7명

○ 회의의제

- NGN WG 작업방법 및 NGN 관련 상호협력 이슈 토의

(2) 주요 결과

○ CJK WG 작업방법

- NGN Working Group(CJK 표준협력회의) 사이에 개최, WG 작업방법 및 중점 토의사항들을 정의하고 전략수립과 Ad-Hoc meeting(ITU 회의(SG13, FGNGN)직전 ITU 미팅 개최지에서 개최)의 운영에 대한 합의

○ CJK의 역할과 기능

- NGN-WG의 연구범위를 FGNGN 워킹그룹 구조에 따라 보완
- NGN WG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Documentation”, “Contribution” 및 “Test and verification”을 통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각국의 기술적인 교류 및 방문(예, 중국 - 스위스, 일본 - 3G 모바일, 한국 - 홈네트워크)에 대한 제안 및 합의

○ 테스트베드 이슈

- 한국에서 제안하여 테스트베드 구축 프로젝트 수행에 합의
- 단계별 접근을 추진기로 함(2010년까지 3단계 전략 수립)
- TTFG(Testbed Task Force Group) 발족 및 ToR 수립(NGN-WG_018)

○ 상호 정보교환

- NGN에서 “소프트스위치”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하고, “NGN에서의 소프트 스위치” 관련 이슈에 대해 차기 FGNGN 회의에서 제안하기로 함.



- 추가 논의 이슈
 - 한국에서 제안한 FGNGN Release2 관련 다음 워크 아이템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며, 추후 재검토기로 함
 - Customer Manageable NGN services
 -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and IP TV Services
 - Home and Ubiquitous network applications over NGN
 - Delivery time guarantee service for emergency
 - Harmony between E.164 number and IPv6 address

- 장소 : 중국 상하이(CCSA 주최)
- 일시 : 2005년 9월 초

- 제4차 NGN-WG 회의
 - 장소 : 중국 베이징(CCSA 주최)
 - 일시 : 2005년 6월 24일

- 제4차 NGN ad-hoc 회의
 - 장소 : 중국 베이징(CCSA 주최)
 - 일시 : 2005년 6월 25일

(3) 향후계획 및 대응방안

- 차기회의에는 한·중·일 3국간 테스트베드 구축 관련 논의가 보다 진전을 보일것으로 보이며, 제안국으로서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마련 및 추진 필요
- FGNGN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기로 결정됨에 따라 FGNGN 종료 이후 NGN 표준화 방향에 대한 3국간 의견교류 및 협력방안 모색

4. 차기회의 일정

- 제6차 한·중·일 표준협력회의
 - 장소 : 중국 베이징(CCSA 주최)
 - 일시 : 2006년 4월 10일(월)~12(수)
- 제9차 한·중·일 B3G 표준협력회의

5. 결론

이번 한·중·일 표준협력회의는 3국간에 NGN 테스트베드 구축 관련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NGN 테스트베드 구축그룹(TTFG :Testbed Task Force Group, 의장 : ETRI 최태성 박사)은 국내 IT 산업 활성화 및 국가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나아가 지역 표준화 협의체를 통해 국내 BcN 표준화를 국제표준화 하는데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거대한 시장과 일본의 기술력 그리고 한국의 인프라 환경은 3국이 상호협력하에 무궁무진한 발전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세계표준화의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3국이 겪고 있는 정치적인 요소들이 상호간의 기술 및 표준화 협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TTA**